

# ‘출산 가구’에 내 집 마련 우선 기회... 연 7만가구 특별공급

## 정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방안' 발표

### 내년 3월 신설... 연 1.6~3.3% 이자로 최대 5억원까지 특례대출 결혼 유무 무관... 청약신청, 부부 개별 허용·다자녀 기준 2명으로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이 신설된다. 출산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을 도입하고,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이런 지원은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존 가구에 혜택을 줬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는다면 직접 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산가구에 연 7만호 할당...결혼 여부 안 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 7만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연 3만호가량을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 자격을 준다.

다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50%(3인 가구 이하 976만원·올해 기준) 이하이고 자산이 3억7천 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먼저 기회를 준다.

역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 가구 이하 1천41만원)이다.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다.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도 자녀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신생아 특공과 우선공급은 내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연 1.6~3.3%에 최대 5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이나 임대 시 필요한 자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준다.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신혼부부·생애최초 대출 소득 기준이 7000만원인데 비해 2배 가까이 완화한 것이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주택가액)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자산 기준(5억600만원) 그대로 뒀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연장한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 30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은 50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인데 비해 여건을 대폭 완화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께 출시될 예정이다.

◇부부 개별 청약신청 허용...자녀 둘이어도 '다자녀 특공' =내년 3월부터는 청약 제도도 출산·혼인 가구에 유리하게 바뀐다.

공공주택 특공 때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 기준을 적용한다.

지금은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된다. 1+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미혼 때보다 상대적으로 청약에 불리

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남편과 부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된다면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복 당첨 때 둘 다 무효로 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 때도 특별공급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바꾼다.

지금은 청약 신청자에게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에게 있다면 특공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 시점 때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특공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 특공에 당첨됐다면 계약 이후 결혼한다 해도 계약 해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입주 기간 중 미혼을 유지하도록 해 청년들의 결혼을 막는다는 지적을 고려해 계약 시점에 미혼이라면 입주·제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연합뉴스



“추석 선물 롯데백 상품권으로 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다음달 27일까지 ‘롯데상품권 추석 패키지’를 한정 판매한다.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 구매 금액대별 1% ~ 3.3%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 법인카드 결제 택 300만원, 1000만원 이상 구매 시 0.5% ~ 1%를 추가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민간공사에 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 표준도급계약서 개정...31일부터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거나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기준이 모호해 시공사(건설사)가 발주처에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 조정을 요구

해도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다.

다만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도급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조정'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또는 '중재'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중 하나를 건설분쟁 조정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분쟁 해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당사자 간 이견으로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연합뉴스

## 포토그래퍼 최적 메모리카드 나왔다

### 삼성 '프로 얼티밋' 출시... 고용량 파일 속도·안전성 강화

삼성전자는 속도와 안정성을 강화한 SD카드와 마이크로 SD카드 신제품 'PRO Ultimate' (프로 얼티밋)을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PRO Ultimate' 제품군은 전문 포토그래퍼, 크리에이터 등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메모리카드로, 고용량 콘텐츠의 원활한 작업뿐 아니라 반복적인 데이터 읽기와 쓰기, 지우기 작업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한다.

이번 제품군은 UHS-I 규격 최고 수준인 최대 200MB/s 읽기 속도와 130MB/s 쓰기 속도를 제공하며,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읽기·쓰기 속도를 지원한다. 이밖에 비디오 스피드 클래스 V30을 만족해 4K UHD와 FHD 영상 등의 고용량 파일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마이크로 SD카드의 경우 A2 등급을 별도 지원해 연속적인 읽기·쓰기와 멀티태스킹 작업도 원활하게 지원한다.

이밖에 방수, 낙하, 마모, 엑스레이, 자기장, 온도 변화 등 극한의 외부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안전



하게 보호하며, SD카드의 경우 최대 1500g의 충격까지 견딜 수 있다.

해당 제품군에는 10년 보증 기간이 적용된다. 마이크로 SD카드는 29일부터 출시, SD카드는 오는 10월 출시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기아 '라이프케어' 생활속 피해 보장

### 멤버십 가입 고객 대상 상품 출시...운전자·골프·여행 등 8종

기아는 일상 속 피해까지 보장하는 기아멤버십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을 신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은 기아 멤버십에 가입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운전, 레저, 여행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운전자 케어 ▲금융 케어 ▲골프 케어 ▲아웃도어 케어 ▲자전거 케어 ▲여행자 케어 ▲패밀리 케어 ▲펫 여행 케어 등 8종이 운영될 예정이다.

'운전자 케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어난 피해 상황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보험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금융 케어'는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기존에 있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대출금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상환을 지원한다.

이외 골프 중 상해 발생 시 보장하는 '골프 케어', 등산과 캠핑 등 레저 활동 중 다쳤을 때 보장하는 '아웃도어 케어',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자전거 케어', 국내 여행 중에 발

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여행자 케어'도 운영한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여행 중 반려동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관해 보장받을 수 있는 '패밀리 케어'와 '펫 여행 케어'는 9월 말 출시 예정이다.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은 기아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기아 및 기아멤버십 홈페이지 또는 '마이기아(MyKia)' 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기아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엔데믹에 온라인쇼핑 성장세 '주춤'

### 지난해 11.5% 하락...여행·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20% 증가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계속 증가한 반면,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간한 '2023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9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2% 증가했다.

다만 성장률은 2021년 상반기 23.7%, 2022년 상반기 12.2%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상품 거래액은 78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 증가에 그쳤다.

반면 여행, 교통, 레저를 포함한 서비스 거래액은 31조1000억원으로 20.0% 늘었다.

판매처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을 보면 모바일쇼핑 80조7000억원, 인터넷(PC)쇼핑 28조4000억원으로 모바일이 PC의 2.8배 규모였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규모 소비 확산, 간편결제 시스템 정착 등으로 모바일이 주요 구매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소매 시장 전체 매출액은 363조5000억원에서 494조원으로 35.9%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 휴식용품 등으로 대표되는 무점포 소매 매출액이 70조3000억원에서 124조2000억원으로 76.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

다.

이 기간 코로나19 사태에도 오프라인 유통 중 슈퍼마켓·잡화점 (39.4%), 전문소매점 (31.2%), 편의점 (27.8%), 백화점 (26.0%)의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3.9% 늘어나는 데 그쳤고, 팬데믹의 타격이 컸던 면세점은 6.0% 역성장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엔데믹(감염병의 풍도병화)을 맞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경제 및 야외활동에 따른 외출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백화점, 면세점, 전문소매점 등 오프라인 유통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오비맥주, 업계 첫 태양광 에너지로 맥주 생산

### 광주공장, 패널 설치 준공식

### 연간 소비 전력 11% 대체

오비맥주가 광주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주류업계 최초로 태양광 에너지로 맥주를 생산한다. 오비맥주는 28일 오전 오비맥주 광주공장 'RE100 태양광 패널 설치 준공식'을 열고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맥주 생산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에 동참, 이를 위한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자사 생산 공장 내 태양광 패널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소비형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자가 발전한 재생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주류업계 최초라는 게 오비맥주의 설명이다.

광주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은 총 2.6MW 규



모로, 생산 가능한 연간 전력은 광주공장 소비 전력의 약 11%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인 3.7GWh다.

오비맥주가 해당 전력을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하게 되면 광주공장에서는 연간 약 1709t의 탄소 발생량을 감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발전설비의

기대 수명인 30년간 총 4만9000t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비맥주는 광주공장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에도 태양광 패널 설치를 완공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52.16 (+8.75)
↑ 코스닥	916.24 (+6.86)
↓ 금리(국고채 3년)	3.740 (-0.019)
↓ 환율(USD)	1321.90 (-1.50)